

인항 정신의 보고(寶庫)

본교가 설립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꿈결같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올해로 본교는 첫 졸업생을 배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본지를 창간함으로써 안팎으로 본교의 위상을 정립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항고등학교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학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교원 채용 부조리를 쇠신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신입 교사 임용시 평교사의 의견을 반영시켜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준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직원회의를 운영함으로써 항상 평교사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공정한 서류심사와 공개수업을 통한 경쟁에서 선발된 신입 교사들은 남다른 자부심과 철저한 직업의식과 열성으로 타학교의 모범이 되었던 바 본인은 교사분들의 이러한 정성에 감사의 뜻을 보내고자 합니다.

애초에 본교가 설립될 당시 주위에서는 걱정과 의혹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신설학교는 정상적인 학교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재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본교는 명실상부한 인문계 명문고등학교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기장을 쓰듯이 모든 기관, 모든 단체는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도 인항의 역사를 기록할 교지를 창간하기에 이르렀으니 진정한 의미의 인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인류의 역사는 기록에서부터 시작되듯이 인항의 역사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재단이사장 정 한 주

따라서 본지에서는 모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의 꿈과 희망과 땀 냄새가 담겨져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지에서는 우리 인향고의 찬란한 승리의 보고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고 면학하는 학생상, 존경받는 스승상, 자애로운 부모상이 이 책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기관일진대, 본지는 그 시민정신을 실천하는 시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향고는 본지를 통해 영광을 더욱 영광답게 빛낼 것이고 긍지를 더욱 긍지답게 꽃피울 것입니다. 또한 본지는 미래에 대한 숨겨진 결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나간 과거에 대한 뼈아픈 자성의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기대가 부풀은 희망찬 시간이면 함께 울고 웃으면서 어울려가는 사람들은 꿈 없이 살아서 호흡하는 생명과 항상 고동치는 맥박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은 교실에서 교과서의 책갈피 사이에 그려진 이상과 북돋은 용기를 배우고, 오늘의 인향 교지에서는 정열과 용솨음으로 물결치는 젊은이의 기상이 의연하게 스며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향인들의 지적인 결정체나 정서의 순화로 이어져 언제 어디서 쉬지 않는 탐구 정신에 깊은 찬사와 격려를 보내며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영원한 저력은 우리들의 주저하지 않는 실험정신에 있습니다.

이제 꿈결같은 3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한마음으로 고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 생명체를 유지하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인향고등학교 교지가 인향정신의 보고로서 찬란하게 자리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교지를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 준 여러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노고에 치하드립니다.